100% 우먼, 올해는 자전거.

스위스로 사이클링 모험 떠나볼 때

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보기
페달 밟아 나아가는 길에서 마주하는 크고 작은 챌린지
100% 우먼 전용 바이크 투어 참가해 보기
초보도 쉽고 안전하게 도전할 수 있어

2021 년 3 월 8 일, 스위스정부관광청은 스위스 여성 참정권 50 주년을 기념하며 '세계 여성의 날'에 맞춰 '100% 우먼' 캠페인을 성공적으로 론칭하고, 20 개 이상 국가 출신의 전 연령대 여성들이 피크 챌린지에 참가한 바 있다. 그리고 작년 6 월에는 스위스 홍보대사(스위스 프렌즈) 배우 이시영을 포함한 80 명의 여성 산악인이 해발고도 4,164m 브라이트호른 정상에 올라 세상에서 가장 긴 인간 띠를 만들어 세계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. 이 '100% 우먼' 캠페인은 전 세계 여성들에게 스위스 자연을 새롭게 탐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 여성들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하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다. 여성들이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취를 위한 도전에 적극적으로 나서고,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이다.

2023 년에도 '100% 우먼'은 계속된다. 올해는 자전거다. 전 세계 여성들에게 스위스정부관광청이 말한다. 이제는 익숙한 공간에서 벗어나 사이클링 모험을 떠나볼 때라고. 자전거 페달을 밟고 나아가는 그 길에서 크고 작은 챌린지를 마주한다. 이바이크나 그래블 바이크, MTB, 로드 바이크에 관계없이 설계된 '100% 우먼' 전용 바이크 투어에서는 가이드의 제안과 다양한 체험을 만나볼 수 있다. 자전거를 좋아하는 모든 여성이라면 누구나 자기에게 꼭 맞는 투어를 찾아볼 수 있다. 자기가 즐겨볼 코스와 거리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. 50 개가 넘는 바이킹 체험 상품이 마련되어 있는데, 가이드도 모두 여성이고, 사이클 프로들이다. 초보자도 참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마련되어 있다.

스위스정부관광청은 2023 년 '100% 우먼' 캠페인에 사이클링을 도입한 까닭을 다음과 같은 자전거로 스위스를 탐험해 봐야 하는 여섯 가지 이유로 설명한다.

1. **다양성:** 스위스 사이클링은 여성만큼이나 다채롭다.
2. **동호인 정신:** 가이드 체험이나 프로그램에 참가해 같은 마음의 여행자를 만날 수 있다.
3. **쉽고 실용적:** 이정표가 설치된 트레일, 바이크 호텔, 손쉬운 자전거 렌탈 등 관리가 훌륭하다.
4. **지속가능성:** 자전거 위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온전한 정통 방식으로 스위스를 체험할 수 있다.
5. **안전:** 낮은 범죄율 덕분에 여성도 안전하게 나 홀로 여행할 수 있다.
6. **초보 친화적:** 100% 우먼 초급 레벨 프로그램이라면 모든 기본 기술을 금세 터득할 수 있다.

스위스정부관광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자전거 투어, 마운틴 바이킹, 로드 사이클링을 소개하고, 자전거 여행을 더욱 편리하게 해주는 바이크 호텔도 안내한다.

자료 협조: 스위스 관광청 www.MySwitzerland.com

Switzerland Tourism Korea
77 Songwol-gil, Jongno-gu, Seoul 03165
MySwitzerland.com